# 능동문과 수동문에서의 조사의 연속성에 대하여

## -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를 중심으로-

유 민 아*

차 례

1. 들어가며
2. 연구 방법
3.「に」「から」「によって」의 능동문과 수동문에서의 기능과 연속성
4. 마치며

# 1. 들어가며

본고는 일본어 수동문에서 조사「~に」,「~によって」,「~から」의 선택이 능동문에서 사용되는 조사의 기능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동작 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に」「~によって」「~から」의 선택 문제는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로서,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동사의 분류를 중심으로 한「に수동문」「によって수동문」등 단일 수동문의 연구, 또는 조사의 기능에서 본 연구, 주어와 동작주체의 성질(유정물/무정물)에 의한 연구 등이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に」「によって」「から」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1) 花子が次郎ニ辭典を借りる (相手・起点)
(하나코가 지로에게서 사전을 빌린다)

* 고려대학교 강사

(2) 私は母親ニ買い物を頼まれた (相手・起点・動作主体)
(나는 어머니에게서 물건을 사오라고 부탁받았다)

예문 (1)(2) 중 (1)의「に」격은 능동문에서 사용되어「상대, 기점」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2)의「に」격은 수동문에서 사용되어「상대, 기점, 동작주체」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즉 (1)의 능동문과 (2)의 수동문에서의「に」격은「상대, 기점」이라는 동일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사용되는 조사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수동문에서 동작주체[1]를 나타내는 조사가 능동문에서 사용되는 조사의 기능에 의하여 수동문에서도 사용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현대 일본어 문헌 중 조사「~に」「~によって」「~から」를 포함한 능동문과 수동문을 검출하여, 조사의 종류(「に」「によって」「から」)별로 분류한다.
2) 위와 같이 분류된 조사는 각각의 조사가 가지는 기능에 따라 하위 분류한다. 능동문의 경우는 참고 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며, 수동문의 경우는 능동문에서의 조사 기능에 맞추어 분류한다.
3) 하위 분류된 능동문과 수동문은 각 조사의 기능에 공통점이 있는 기능 순으로 나열하여 상호 연속성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조사의 기능은 먼저「から」와「によって」의 경우 이들 조사의 기능이 다른 사전보다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日本語教育事典』에 따르며, 만일『日本語教育事典』에 정의되어있지 않는 경우는『日本文法大辭典』과『基礎日本語』등을 보충 자료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복합격조사「によって」는『日本語教育事典』이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용례로서 먼저 능동문의 조사는 현대 일본 소설 13권과 평론 중,

처음부터 서른 번째까지의 문을 사용하였으며,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로서는 현대 일본 소설 13권과 평론, 또한『新潮文庫 100冊』중 26권에서 나타난 모든 수동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 3.「に」「から」「によって」의 능동문과 수동문에서의 기능과 연속성

여기에서는 조사「~に」「~によって」「~から」의 능동문에서 사용되는 기능과 수동문에서 사용된 기능을 서술하고,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 능동문과 수동문에 있어서 조사「に」의 연속성

『日本語教育事典』에 의하면 조사「に」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日本語教育事典』에 나와 있지 않은 기능에 대해서는『日本文法大辭典』『基礎日本語』을 참고로 하였다.

#### 3.1.1 능동문에서의 조사「に」의 기능

1) 존재의 장소를 나타낸다. 「庭に池がある」
2) 행선지를 나타낸다. 「大阪に行く」
3) 물건의 수수(授受) 등을 행하는 상대를 나타낸다.
「學校で先生に教わった」
4) 동작이나 태도가 향해지는 곳을 나타낸다. 「母に甘える」
5) 원인을 나타낸다. 「雨にぬれた木々の緑」
6)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水が氷になる」
7)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이나 사고 대상 등을 나타낸다.
「山に近い」
8) 동작의 목적을 나타낸다. 「花見に行く」

9) 시간을 나타낸다. 「7時に起きる」
10) 동사를 수동문으로 바꿀 때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낸다.
「子供に死なれた」
11) 동사를 사역문으로 바꿀 때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낸다.
「彼にその仕事をやらせた」
12) 그 상태를 성립시키기 위한 내용을 나타낸다.
「この子は忍耐力に欠けている」
13) 동작・작용이 이루어지는 법, 상태를 나타낸다.
「こずえごしに富士山が見える」
14) 동작・작용・상태가 어떤 수량에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百人に…及ぶ」
15) 분할하는 수를 나타낸다. 「すいかを十個に割る」
16) 사항(事柄)을 나타내는 것의 발생・존재의 범위를 나타낸다.
「災害を伴う地震が何十年に一回はある」

다음은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に」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1.2.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に」의 기능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に」의 기능은 상기 3.1.1의 능동문에서의 조사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동작주체・상대・기점을 나타낸다.

(5) 聖フランシスコ師以來、我々の幾多の先輩たちが彼等にきっとこれらの言葉を教えられたに違いありません。(沈默)
(성 프란시스코 이래, 우리들의 많은 선배들이 그들에게 틀림없이 이 언어를 가르쳤을 것이다)

2) 동작이나 태도가 향해지는 곳을 나타낸다.

(6) 島村はなぜかもう一度聲を强めようとした途端に、雪の鳴るような靜けさが身にしみて、それは女に惹きつけられたのであった。(雪國)

(시마무라는 왠지 한 번 더 소리를 강하게 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눈이 울리는 듯한 조용함이 몸이 사무치고, 이것은 그녀를 강하게 끌었던 것이다)

3) 원인을 나타낸다.

(7) スモッグを呼吸し、騒音に悩まされ、交通事故の恐怖に耐えながら、危な網渡りのような一日一日を…… (青春の蹉跌)
(스모그를 마시며, 소음에 시달리고, 교통사고의 공포를 참으면서, 위험한 사다리타기와 같은 나날을 ……)

4) 도구・재료를 나타낸다.

(8) 石丸が防棚や外城壁に命中するたびに、あたりは一面の土煙に包まれた (コンスタンティノーブルの陥落)
(이시마루가 방책이나 외성 벽에 명중할 때마다, 근처는 흙 연기에 휩싸였다)

5) 동작주체(행위나 태도의 주체)만을 나타낸다.

(9) 眼の前に看護婦に支えられた伸子が、とても人間の赤ん坊とは思えぬ聲で泣きさけんでいて、… (火垂るの墓)
(눈앞에서 간호부에게 부축된 노부코가, 인간의 갓난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목소리로 울고 있어,…)

이상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に」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조사의 연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1.3 능등문과 수동문에서의 조사「に」의 연속성

3.1.1과 3.1.2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동문의 조사「に」격은「상대, 기점」과「원인」의 기능 등 에서 능동문에서의 기능과 공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는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기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상대, 기점」의「に」

1.1) 일본어의 조사「に」의 대표적 기능의 하나인 장소의「に」중에는 다음의 예문과 같이「도착점」을 나타내는「に」가 있다.

(10) それ以來、私はどんな美容院に入っても、相手があきらかに從業員だと判っていようが、まず「先生ですか」と訊くようになりました。(錦繡)
(이후, 나는 어떤 미용실에 들어가서도 상대가 확실히 종업원이라 생각되더라도, 우선 선생님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

1.2) 상기「도착점」의「に」는 장소뿐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1) 自分たちに神學を教えていたフェレイラ教父のことをありありと憶えている。(沈黙)
(우리들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교부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1.3) 유정물의 도착점을 나타내는「に」의 기능은, 한정된 타동사에 있어서 물건 또는 행위를 발하는「기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12) 私は喫茶店のマスターにメモ用紙とボールペンを借り、… (錦繡)
(나는 찻집의 마스터에게 메모용지와 볼펜을 빌려,…)

이들 동사(ex借りる)는 그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동사와 대립관계를 이루는 동사의 동작(ex貸す)이 이미 전제로 성립하고 있다. 즉 이는 동작주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이들 동사는「상대, 기점, 동작주체」을 나타내고 있다.

1.4) 이러한 능동문에서의「상대, 기점, 동작주체」의 기능은 수동문에서의「상대, 기점, 동작주체」의 기능을 나타내는「に」와 동일하다.

(13) 僕は要市という背の高い半ば白痴の無法者によくいじめられた (黒い雨)
(나는 요시라고 하는 키가 큰 백지의 무법자에게 자주 놀림을 당했다)

이와 같이 능동문에서 물건 또는 행위를 주는 상대의 「に」격이 수동문의 동작주체에서도 나타낸다는 것은 능동문의 「に」격과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に」격이 조사의 기능에서 동일한 관계로, 이는 수동문의 「に」격이 이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능동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1.5) 더 나아가 「상대, 기점,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유정물은 기점의 성격이 없어지며 「동작주체」만을 나타내는 예문이 있다.

(14) ひとにからだにさわられることが大きらいだったあたしは、… (聖少女)
(남들이 나의 몸을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나는,…)

1.6) 상기 1.5)의 동작주체라는 기능은 유정물 뿐 아니라 무정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무정물이라 해도 동사의 종류는 1.5)와 동일하다. 따라서 같은 기능이 동작주체로서 오는 명사가 유정물에서 무정물로 변화 해 간 것이라 생각된다.

(15) 日本の社會は金錢や情實に支配されていて、歐米の水準には合理性の点でも、能率の点でもおくれている。(人民は弱し　官吏は强し)
(일본 사회는 금전과 정실에 지배되고 있고, 구미의 수준에는 합리성의 면에서도 능률면에서도 뒤쳐져 있다.)

이상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보이는 조사 「に」의 「상대, 기점」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속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장소 중 「도착점」을 나타내는 「に」격(능동문) →
② 「상대・도착점」을 나타내는 「に」격(능동문) →
③ 「상대・기점・동작주체」을 나타내는 「に」격(능동문) →
④ 「상대・기점・동작주체」을 나타내는 「に」격(수동문) →
⑤ 「상대・동작주체」을 나타내는 「に」격(수동문) →
⑥ 무정물의 「동작주체」을 나타내는 「に」격(수동문)

다음으로 원인의 「に」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원인」의「に」

2.1) 능동문에서 사용되는「に」격에는 원인의 기능이 있다.

(16) 晝間は事務の決裁や來客との応接に忙しく、また一日に一回は大崎驛のそばの工場へ、ようすを見に行かねばならなかった。(人民は弱し官吏は強し)
(비서는 사무의 결재나 손님 접대로 바쁘고, 또 하루에 한번은 오자키역의 근처 공장에 기미를 살피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2) 이「원인」의「に」격은 수동문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동작주체의「に」격과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통하고 있다.

(17)「……何かに動かされてはいるだろうが、それで皆議論は多いがね」(友情)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겠지만, 따라서 모두 기론은 많다)

2.3) 이와 같은 원인을 나타내는「に」격은 다음과 같은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수동문에서도 사용된다.

(18) お葬式のビラのような初店の女の名前を書いた白い紙がビラビラ風に吹かれていた。(放浪記)
(장례식의 전단과 같이 가게의 여자 이름을 쓴 하얀 종이가 팔랑팔랑 바람에 날리고 있다)

2.4) 상기의 2.3과 같이「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수동문 중에는 원인의 기능이 아닌「동작주체」로 해석되는 문이 있다.

(19) 浜に戻っても彼女たちは雨にうたれたまま聲をあげて泣きました。(沈黙)
(해변가로 돌아와서도 그녀들은 비에 젖는 채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이와 같이「に」격이 동작주체의 기능만을 갖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수동문은 동작주체와 대상간에 접촉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상기의 접촉의 의미는, 다음의 예문과 같이 歸屬先[2]를 나타내는 경우의 자연현상과 관계가 있다. 이는 능동문에서 「도착점,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주어를 수동문에서 표현하기 위하여 도착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に」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0) 小屋の前の雜木林はその霧雨につつまれ、模糊としています。(沈黙)
(작은 집 앞의 잡목림은 그 서리에 싸여, 뿌옇게 보였습니다)

이상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원인」의 「に」격이 수동문에서 사용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속성은 다음과 같다.

① 무정물의 「원인」을 나타내는 「に」격 (능동문) →
② 무정물의 「원인・동작주체」를 나타내는 「に」격 (수동문) →
③ 무정물의 「원인・동작주체」(자연현상)을 나타내는 「に」격 (수동문) →
④ 무정물의 「동작주체」(자연현상)을 나타내는 「に」격 (수동문) →
⑤ 무정물의 「동작주체・歸屬先」를 나타내는 「に」격 (수동문)

다음으로는 「から」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2 능동문과 수동문에 있어서 조사 「から」의 연속성

조사 「から」의 기능은 『日本語教育事典』에 따른다. 『日本語教育事典』에 기술되지 않는 기능은 『日本文法大辭典』에 따라서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

### 3.2.1 능동문에서의 조사 「から」의 기능

1) 물건 등이 나오는 상대를 나타낸다. 「會員から會費を集めた」
2) 나가는 곳이나 기점을 나타낸다. 「お金を財布から取出した」
3) 재료를 나타낸다. 「お米からお酒を作る」
4) 원인을 나타낸다. 「不注意から事故を起こした」
5)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月曜日から土曜日まで毎日授業がある」

6)「遠い、近い」의 형용사에 붙어서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大阪は神戸から近い」
7) 동작주체를 나타낸다. 「私からわたす」
8) 동작을 행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頂上から眺める」
9) 경유점을 나타낸다. 「窓からものを捨ててはいけません」
10) 추량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百人からの人が集まった」

이상 능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に」의 기능에 대하여 서술했다. 이 중 동작 주체를 나타내는 기능은「に」「によって」에서 보이지 않는「から」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수동문에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から」기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다음은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に」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2.2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から」의 기능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に」의 기능은 상기 3.2.1 능동문에서의 조사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행위자・ 물건 등을 주는 상대를 나타낸다.

(21) 僕は僕なりに覺悟をしていたつもりだったが、下宿のお內儀さんから赤紙を手渡された時、奈落の底へ落ち込むような氣持ちを禁じ得なかった。(草の花)
(나는 내 나름대로 각오하고 있었지만, 하숙집 주인아주머니로부터 군대 징집장을 받았을 때, 나락의 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이「から」격이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나 동작주체의 기능과 더불어 기점이라는 기능이 동반된다. 즉,「から」에서는 동작주체만을 나타내는 기능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3.1.3의 (1.5)동작주체만을 나타내는 기능인「に」격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며,「から」기능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 동작주체・나가는 곳・기점을 나타낸다.

(22) しかし当選したものだけが議員として國家から認められ、社會もそれを認めざるを得ない。(青春の蹉跌)
(그러나 당선된 것만이 의원으로서 국가에게 인정받고, 사회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동작주체・경유점을 나타낸다.

(23) 特にこの小説は、作者自身の手から手渡されたものである。(塩狩峠)
(특히 이 소설은 작자 자신의 손으로부터 건네진 것이다)

4)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낸다.

(24) そんなところから彼の哀れな夢幻の世界が生まれるのかも知れぬ。(雪國)
(거기에서 그의 애상한 꿈의 세계가 생겨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상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に」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조사의 기능에 관한 그들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3.2.3 능동문과 수동문에서의 조사「から」의 연속성

3.2.1과 3.2.2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동문의 조사「から」격은「상대, 기점」의 기능 등 에서 능동문에서의 기능과 공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기능은 어떠한 점에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 기점의「から」

1.1) 장소의「기점」을 나타내는「から」가 있다.

(25)「明日早く參ります」と言って歩きかけると、そのひとが天幕から出て來て、私に何も言わないで十錢玉を一つくれた。(放浪記)
(「내일 빨리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걷기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이 천막으로부터 나와서 아무 말도 없이 십전을 하나 주었다)

1.2) 장소 뿐 아니라 사람(유정물)이 기점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기점의 기능은 능동문의 동작주체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상대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6) いつでも外氣に出る候補者の筆頭に數えられていたのに、診斷の度ごとに自分から故障を申し立ててこの特權を放棄してしまった。(草の花)(동작주체인 경우)
(언제라도 외기로 나온 후보자의 필두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단 할 때마다 자신으로부터 고장을 말해서 이 특권을 포기해 버렸다.)

(27) 星はまず、他人から聞いた意見をまとめてみた。(人民は弱し 官吏は强し)
(상대인 경우)
(별은 우선 타인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1.3) 능동문에서 나타나는 「から」의 「상대, 기점」의 기능은 수동문에서도 나타나 「동작 주체, 상대, 기점」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28) 男の人の前で澤山たべる女は男から輕蔑されるって、本当かしら。(青春の蹉跌)
(남자 앞에서 많이 먹는 여자가 남자에게 무시당한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1.4) 상기와 같은 「동작주체, 상대, 기점」의 기능은 동작주체의 기능이 약해진 유정물에 준하는 것까지도 사용된다.

(29) 自分はもう布教會から追放されているだろう。(沈黙)
(자신은 벌써 포교회로부터 추방당했을 것이다)

1.5) 그리고 이것은 유정물에 준하는 어떤 장소가 기점으로서가 아닌, 방향성,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동작이 행해지기 위한 경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가 있다.

(30) ひとつだけ祖母の話には嘘が混じっていたことを、自分は父の口から教えられた。(錦繡)
(딱 한 가지 조모의 이야기에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을, 자신은 아버지의 입으로부

터 알았다)

이상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기점」의 「から」격이 능동문과 어떠한 기능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장소의 「기점」을 나타내는 「から」격 (능동문) →
② 「상대・기점」 또는 「동작주체・기점」을 나타내는 「から」격 (능동문) →
③ 「상대・기점・동작주체」를 나타내는 「から」격 (수동문) →
④ 경유점으로서의 「기점・동작주체」를 나타내는 「から」격 (수동문)

## 3.3 능동문과 수동문에 있어서 복합격조사 「によって」의 연속성

「によって」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3.1 능동문에서의 복합격조사 「によって」의 기능

1) 동사를 수동화 할 때 그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낸다.
「太郎は次郎によって殺された」
2)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工事中により本日休業させていただきます」
3) 수단, 방법이나 재료 등을 나타낸다. 「テストによって選擇する」
4) 현상이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調査によって問題のあることが分かった」
5) 능동문에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31) しかし、長崎の出島に居留を許されているオランダの貿易商人たちによって、事の経過は奥門にもおそらく伝わり、自分はもう布教會から追放されているだろう。(沈黙)
(그러나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가받은 네덜란드의 무역상인들에 의해 일의 경과는 아마 옥문에도 전해져서 자신들은 벌써 포교회로부터 추방당했을 것이다)

이상 능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 「によって」의 기능에 대하여 서술했다. 다음은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 「によって」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3.2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복합격조사「によって」의 기능

수동문에서 다루는 조사의 기능은 3.3.1 능동문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32) その數秒間の切れ目によって、これから降って行く先の地形がおぼろに見すかされ、リフトを支える鐵柱の列が見えた。(青春の蹉跌)
(이 몇 초 사이에, 이제부터 내려 갈 곳의 지형을 흐릿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리프트를 지탱한 전신주가 보였다)

2) 수단, 방법이나 재료 등을 나타낸다.

(33) 二人の手紙のやりとりによって、いわば過去に向けて積み上げられるドラマのように明らかにされていく。(錦繡)
(두 사람의 편지의 교환으로 인해, 말하자면 과거를 향해 쌓아 올렸던 드라마처럼 확실시되어 갔다)

3) 현상이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34) この列車は國有鐵道法によって運營されているが、鐵道の建設のときには行政法のなかの土地收用法が適用された筈だ。(青春の蹉跌)
(이 열차는 국유 철도법에 의해 운영되어졌지만, 철도의 건설 시에는 행정법 안의 토지수용법이 운영되었던 것이다)

4) 동작주체를 나타낸다.

(35) 死体は、さらに警察医によって精細に調べられた。(点と線)
(사체는 더욱 경찰의에 의해 정밀해 조사되었다)

이상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조사「によって」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조사의 기능의 연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3.3.3 능동문과 수동문에서의 복합격조사「によって」의 연속성

3.3.1과 3.3.2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동문의 조사「によって」격은「이유나 원인」의 기능에서 능동문의 기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기능은 어떠한 점에서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によって」

1.1) 능동문에서「이유, 원인」을 나타내는「によって」가 있다.

능동문의「によって」는 타동사와 더불어 사용되어(예문36)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주어(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는 유정물이고, 그 원인을 의미하는 명사는 무정물이다. 이와 같은 기능의 문은 자동사에서도 보여 진다(예문37). 또한 이 자동사문은 타동사문과는 달리 유정물이 아닌 무정물의 경우에도 보여 지며(예문38), 수동문의「동작주체·원인」을 나타내는「によって」와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예문(38)과 같은 기능의 문이 동작주체로 유정물을 취한 경우가 있어 원인의 기능이 동작주체의 기능으로 전이 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36)「…また、きみのあの時の歸國によって、日本人も學問への尊敬ということを感じはじめたようだし、…」(人民は弱し 官吏は強し)
(주어가 유정물이고,「によって」앞에 오는 명사가 무정물인 문 : 타동사문)
(또한 그 때 당신의 귀국에 의해, 일본인도 학문에의 존경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듯 하고,…)

(37) この改正によって、業者はモルヒネの利益にありつくことになった。
(人民は弱し 官吏は強し)
(주어가 유정물이고,「によって」앞의 명사가 무정물인 문 : 자동사문)
(이 개정에 의해 업자는 모르히네의 이익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38)「もっとも、震災によって、內務省、大藏省、橫浜稅關などは燒けてしまいました。」(人民は弱し 官吏は強し)
(주어와「によって」앞의 명사 모두 무정물인 문 : 자동사문)
(더욱 화재에 의해 내무성, 대장성, 요코하마 세관 등은 불타 버렸다)

1.2) 상기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によって」는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によって」와 동일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39) それは、東方からくる者によって帝國は滅びるという意味なのだ、という者もいた。(コンスタンティノープルの陷落)
(이것은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에 의해 제국은 멸망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위와 같은 원인의 「によって」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동작주체의 「によって」 능동문은, 자동사문이다. 이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을 주어로 세워서 그 대상의 상태의 변화에 주목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によって」의 기능은 문의 주어에 변화를 가져오는 동작 대상 겸 그 변화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정물의 동작주체는 유정물의 행위보다는 그 인물의 권력이나 능력 등에 의해 동작이 일어났다고 해석될 수 있어, 「によって」 동작주체의 유정물이 무정물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によって」는 능동물과 수동문 모두에서도 「무정물」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이 동작 주체를 나타내는 「によって」에 대해 노무라쓰요시(野村剛史, 1984) [3]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受動文中の「有情者によって」は「何事かが行われるが、それは要するに何者かによってである」ぐらいの、述語に對する働きかけとしてはやや間接的な地位をしめるものと思われる。」(野村剛史, 1984)
(「수동문 중의 「유정자니욧테」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무언가에 의한 것이다」정도의, 술어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간접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노무라쓰요시, 1984)

이것은 마쓰다(松田, 1986)[4]와도 연관성이 있다.

「モノ名詞[5]は「によって・自動詞文」の因由性の根據には、本來なり得ないということで、「によって・受動文」でも前項名詞におけるモノ名詞、特に有情者は困難である。それで、「モノ名詞によって・受身動詞」の文は「モノ名詞」の活動・行爲

を媒介して受身的事態から引き起こされる事をあらわす」
(「사물명사는「によって・자동사문」의 인유성을 근거로 하면, 본래 될 수 없는 것이 되고,「니욧테・수동문」에서도 전항명사에 있어서 사물명사, 특히 유정자는 곤란하다. 따라서,「사물명사・によって」의 문은 사물명사의 활동, 행위를 매개로 해서 수동적 사태로부터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

1.3) 능동문에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によって」는 수동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40) そのかすかな誇りが、医者によって蹂躙されているようだった。(青春の蹉跌)
(이 작은 긍지가, 의사에 의해 유린되어 있는 듯 했다)

이 수동문에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유정물의 기능은, 능동문에서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유정물처럼 원인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1.4) 수동문에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によって」는 능동문에서처럼 원인을 나타내는「によって」와 관계가 있다.

(41) それらはみな、なにか目にみえない絆によって、互いに固く連結されているような氣がしたのである。(忍ぶ川)
(이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에 의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예문(41)과 같이 원인의 기능을 갖는「によって 수동문」은 주어로서 사람, 또는 사람에 준하는 것이, 동작주체로는 무정물이 사용되어 있다. 즉 달리 말하며, 이 문들은 능동문으로 바꾸면 무정물 주어 문이 되고, 이것은 유정물 주어 문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어문에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정물 주어 문을 피하기 위하여 수동문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이유나 원인」의「によって」격이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 연속되어 사용된 경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무정물 ガ 무정물 ニヨッテ 타동사」구조의 문 →
②「무정물 ガ 무정물 ニヨッテ 자동사」구조의 문 →
③「유정물 ガ 무정물 ニヨッテ 자동사」구조의 문 →
③'「무정물 ガ 유정물 ニヨッテ 자동사」구조의 문 →
④「유정물 ガ 무정물 ニヨッテ 타동사의 수동형」구조의 문 →
④'「무정물 ガ 유정물 ニヨッテ 타동사의 수동형」구조의 문 →
⑤「유정물 ガ 유정물 ニヨッテ 타동사의 수동형」구조의 문

# 4. 마치며

이상 조사「~に」「~によって」「~から」의 능동문과 수동문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기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고에서 밝혀진 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상대, 기점, 동작주체」을 나타내는「に」격

능동문에서「상대, 기점, 동작주체」을 나타내는「に」은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상대, 기점, 동작주체」기능과 동일하며, 이는 능동문에서 사용되는 조사의 기능이 이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동문에서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능동문과 수동문에서의 조사의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수동문에서의「상대, 기점, 동작주체」는 유정물의「상대, 동작주체」, 무정물의「동작주체」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원인」을 나타내는「に」격

능동문에서「원인」을 나타내는「に」의 기능은 수동문에서의「원인,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이어지며, 이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동작주체나「동작주체, 귀속선(歸屬先)」의 기능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3)「기점」을 나타내는「から」격

능동문에서의「상대・기점」「동작주체・기점」의 기능을 나타내는「から」는 수동문의

「상대・기점・동작주체」의 기능과 연속성을 보인다.

4)「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によって」격

원인을 나타내는 「유정물 ガ 무정물 ニヨッテ 자동사 문」의 구조를 가진 능동문은 「유정물 ガ 무정물 ニヨッテ 타동사의 수동문」의 구조를 가진 문과 동일한 기능을 보이며, 또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무정물 ガ 유정물 ニヨッテ 자동사」문은 「무정물 ガ 유정물 ニヨッテ 타동사의 수동문」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사의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동문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의 선택이라는 문제를 능동문에서 사용되는 조사의 기능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적 연구와 더불어 역사적 자료의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통시적 고찰을 통한 본 문제의 조명과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능동문과 수동문의 분석 그리고 그들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注】

1) 본고에서 사용하는 동작주체는 수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의 주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정물과 비정물 모두를 포함한다.
2) 細川(1984)에서는 歸屬先를 나타내는「に」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 防風林に囲まれた百姓家や小川や、それに小さなお寺。(草の花)
このように「含む、包む、吸い込む」などの動詞の用いられる受動文は對応する能動文において、歸屬先を示す名詞句を主語にたて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この歸屬先は受動文では「に」格で現れる。
3) 野村剛史(1984)「-にとって/ -において/-によって」『日本語學』3-10 明治書院
4) 松田剛史(1986)「受動文の「によって」」『大谷女子大國文』16
5) 마쓰다(松田, 1986)는「によって」가 명사와 술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 역할을 이루는 환경으로 술어 앞에 오는 명사와 술어를 다루었다. 여기서 술어 앞에 오는 명사라는 것은「すること」「こと명사」「抽象명사」「もの명사」를 말한다. 이 중「もの명사」의 하위분류로「유정물」「무정물」을 두고 있다.

【參考文獻】

奥田靖雄「を格のかたちをとる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言語學研究會編『日本語文法・連語論 (資料編)』, むぎ書房, 1983b.

尾形佳介「日本語の受動文の記述」『文林』29, 松蔭女子學院大學國文學研究室, 1995.
金水敏「受動文の歴史についての一考察」『國語學』164, 國語學會, 1991.
工藤眞由美「現代日本語のパーフェクトをめぐって」『ことばの科學』3, むぎ書房, 1989.
_____「現代日本語の受動態」『ことばの科學』4, むぎ書房, 1990.
_____『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1995.
佐伯哲夫「受動態動作主マーカー考（上）（下）」『日本語學』6, 明治書院, 1987.
佐藤琢三「相對自動詞と受動態」『文教大學國文』24, 文教大學國文學會, 1995.
_____「日本語のヴォイスの体系とプロトタイプ」『日本語と日本文學』21, 筑波大學國語國文學會, 1996.
砂川有里子「『に』と『から』の使い方と動詞の意味構造について」『日本語・日本文化』12, 大阪外國語大學留學生別科, 1983.
_____「＜に受動文＞と＜によって受動文＞」『日本語學』3—7, 明治書院, 1984.
高橋太郎「現代日本語のヴォイスについて」『日本語學』4, 明治書院, 1985.
_____「ヴォイス、テンスのカテゴリーとその変容」『動詞の研究』, むぎ書房, 1994.
寺村秀夫『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1』, くろしお出版, 1982.
中村 健「受動態の普遍的特徴」『日本語學』10—1, 明治書院, 1991.
野村剛史「自動・他動・受身動詞について」『日本語日本文化』11, 大阪外國語大學留學生別科日本語學科, 1982.
_____「—にとって / —において / —によって」『日本語學』3—10, 明治書院, 1984.
早津恵美子「有對他動詞の受身表現について－無對他動詞の受身表現との比較を中心に－」『日本語學』9—5, 明治書院, 1991.
細江逸記「我が國語の動詞の相（voice.を論じ、動詞の活用形式の分岐するに到りし原理の一端に及ぶ」『岡倉先生記念論文集』, 岡倉先生還暦祝賀會, 1928.
細川由起子「日本語の受動文における動作主のマーカーについて」『國語學』144, 國語學會, 1986.
松田剛史「受動文の「によって」」『大谷女子大國文』16, 大谷女子大學國語學會, 1986.
村上三壽「うけみ構造の文の意味的なタイプ」『ことばの科學』8, むぎ書房, 1997.
森田良行『基礎日本語 2』, 角川書店, 1980.
_____『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 明治書院, 1994.
_____「受動表現と主觀性」『日本語のヴォイスと他動性』, くろしお出版, 1991.
丁意祥「直接受身としての＜非分離性關係の受身＞『日本學報』15, 大阪大學文學部日本學研究室, 1996.
張麟聲「ニとカラトニヨッテ －受動文における動作主マーカー」『日本語類義表 現の文法（上）』宮島達夫・仁田義雄編, くろしお出版, 1995.

_____「『非情ガ（ハ） ＋ 有情ニ ＋ サレル』型受動文について」『現代日本語研究』3, 大阪大學文學部日本學科 現代日本語學講座, 1995.
_____「受動文における動作主明示・不明示の構文的規則について」『日本語學』16-2, 明治書院, 1996.
_____「現代日本語受動文の構文的タイプ」『現代日本語研究』5, 大阪大學文學部日本學科現代日本語學講座, 1997.

<用例出典一覽>

『黑い雨』井伏鱒二 新潮文庫 1979
『東京ラブストーリー』坂元裕二 小學館 1991
『斜陽』太宰治 新潮文庫 1991
『三四郎』夏目漱石 新潮文庫 1988
『潮騷』三島由起夫 新潮文庫 1996
『20代に讀むヒト學ココロ學』淸水佑三 PHP文庫 1995
『人間失格』太宰治 新潮文庫 1989
『人生論ノート』三木淸 新潮文庫 1996
『二十歲の原点』高野說子 新潮文庫 1996
『パニック・裸の王樣』開高健 新潮文庫 1985
『坊っちゃん』夏目漱石 新潮文庫 1983
『めし』林芙美子 新潮文庫 1951
『雪國』川端康成 新潮文庫

<『新潮文庫 100冊 CD-ROM』 95年度版>

『聖少女』倉橋由美子
『人民は弱し・官吏は强し』星新一
『燒け跡のイエス・處女懷胎』石川淳
『あすなる物語』井上靖
『劍客商賣』池波正太郎
『沈默』遠藤周作
『一握の砂・悲しき玩具』石川啄木
『風立ちぬ・美しい村』堀辰雄
『山椒大夫・高瀨舟』森鷗外
『若き數學者のアメリカ』藤原正彦
『忍ぶ川』三浦哲郎
『李陸・山月記』中島敦
『友情』武者小路實篤
『草の花』福永武彦
『アメリカひじき・火垂るの墓』野坂昭如
『野菊の墓』伊藤左千夫
『ブンとフン』井上ひさし
『点と線』松本淸張
『放浪記』林芙美子
『コンスタンティノープルの陷落』塩野七生
『錦繡』宮本輝
『楡家の人びと』北杜夫
『銀河鐵道の夜』宮澤賢治
『冬の旅』立原正秋
『雁の寺・越前竹人形』水上勉
『遠野物語』柳田國男

# 能動文と受動文での助詞の連續性について

## －動作主体を表す助詞を中心に－

**兪 玟 我**

本稿では、受動文の動作主体のとる助詞の使い分けについて、助詞「に」「から」「によって」のもつ本來の機能に注目して、この問題の解決をこころみる。受動文の動作主体を表わす助詞「に」「によって」「から」には、動作主体としての機能以外にも、能動文で用いられる助詞の機能がみられる。それで受動文の動作主体を表わす助詞の機能は能動文でみられる機能をふくめた助詞の機能によって、受動文でも用い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従って、本稿の目的は受動文で用いられる助詞「に・から・によって」が能動文で用いられる助詞とどのような關連性を示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能動文での助詞の機能から始め、お互いの共通点を通じ、その助詞の機能が受動文でも用いられていることを探ることである。

本稿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点は、次のようである。

まず、「相手」のなかには限られた他動詞において「起点」として解釋される場合がある。この際、助詞「に」は「相手・起点・動作主体」を表すことになり、受動文で動作主體を表す助詞「相手・起点・動作主体」の機能と同様であって、能動文と受動文とでの助詞の連續性を示すことになる。さらに、この機能は「起点」の性質がなくなり、「動作主体」としてしかみられない文にも關係している。

次は「原因」を表す「に」で、これは能動文でけではなく、受動文の「原因・動作主体」を表す「に」格にもつながっている。さらにこの「原因・動作主體」を表す「に」格は自然現象を表す受動文にも現われる。

そして「起点」の「から」は能動文で「相手・起点」または「動作主体・起点」を表す機能があり、受動文での「動作主体・相手・起点」の性格と同一性があることがわかる。

最後に「原因・理由」を表す「によって」は自動詞文の中で「原因」を表す「によって」が用いられる環境（主語が有情物で、「によって」の前にくる名詞が無情物である

）と、他動詞の受動文で用いられる環境とが同じであり、能動文と受動文で使われている助詞の連續性を示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また能動文で「動作主體」を表す「によって」も受動文での動作主體を表す「によって」と同じ環境(主語が無情物、「によって」の前にくる名詞が有情物である）をなしていて、他の格助詞に比べ、能動文と受動文とでの機能の差が餘りないことがわかる。